

# PDP, 삼성-LG가 시장 42% 장악

## 삼성SDI, 시장점유율 22.8%로 3분기 연속 1위 ... 생산량 확대 전망

2004년 상반기 국내 PDP 생산기업들이 전세계 PDP 패널의 42%를 생산해 일본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국내 디스플레이 전문 조사기업인 디스플레이뱅크가 발표한 2/4분기 PDP 패널 출하실적에 따르면, 삼성SDI는 약 18만7000대를 생산해 22.8%의 시장점유율로 2003년 4/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일본 마쓰시타는 이바라키 2라인의 정상가동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17만3000대로 2위를 차지했으며, LG전자는 2004년 5월의 3라인 가동으로 1/4분기 대비 34.9% 증가한 16만1000대(19.6%)를 생산해 신규 투자에 주춤한 일본 FHP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3위를 기록했다.

이에 따라 2003년 36%였던 국내기업의 PDP 패널 생산량은 2004년 상반기 42%로 6%p 높아졌으며 일본기업은 61%에서 55%로 낮아졌다.

PDP 패널 가격은 2003년 4/4분기까지 지속된 공급부족이 2004년 1/4분기 공급초과로 전환되면서 2/4분기에는 가격이 떨어졌으며, 특히 42인치 SD기종은 2003년 말 1300달러이던 가격이 2/4분기 960달러로 약 26%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반면, 40인치 LCD 패널 가격은 25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소폭 하락에 그쳐 대형 TV 시장에서 LCD 7세대 라인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PDP TV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

디스플레이뱅크는 “2004년 4/4분기에는 42인치 패널 3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삼성SDI의 3라인이 가동되고 파이오니어 역시 3만장 규모의 2라인을 가동하면서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고 2005년 상반기에도 LG전자의 4라인(월 3만장), 삼성SDI의 4라인(월 3만장), FHP의 3라인(월 2만5천장) 가동으로 다시 한번 큰 폭의 생산량 확대가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2004년에는 2003년 생산량의 2배인 약 348만대가, 2005년에는 630만대의 PDP 패널이 각각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2004/09/14>